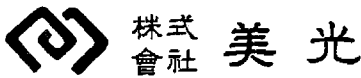


# 영세성 딛고 선진기술개발로 세계화

다양화된 소비자 요구에 따른 기술력 증강에 박차



- 1975.12. 삼광유리공업(주)인쇄과에서 인쇄사업 시작
- 1983.12. 삼광유리공업(주)에서 분리독립, (주)미광 설립
- 1990.2. 남동공단 공장 신축 · 완공
- 1990.6. 금형사업부 신설
- 1990.7. 남동공단으로 회사 이전
- 1995.2. 법원에서 동방전선(주) 경락 입찰하여 낙찰
- 1995.3. 조양래 대표이사 취임
- 1995.10. 현 박현경 대표이사 취임
- 1995.10. 경락받은 현 공장으로 이전 완료

## 국내 최고의 유리인쇄업체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류 가운데 가장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제품으로 화장품병, 글라스 등의 유리제품을 들 수 있다.

이 유리용기에 제품이 충전되고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완제품이 되려면 그 제품의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이 유리인쇄 과정이다.

소비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화장품 병이나 글라스제품에 대한 인쇄기술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성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글자체와 칼라, 병의 모양도 다양해져 유리인쇄기술은 나날이

그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는 선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선두는 늘 앞만보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75년 삼광유리공업(주)내의 인쇄과에서 화장품인쇄사업을 시작해 1983년 12월 26일 분리 · 독립된 (주)미광은 기술적인 면에서나 생산량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업체로 분리 · 독립 당시 삼광유리공업(주)의 100% 투자로 설립되어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입구즈음에 자리를 잡고 총 101명이 국내 최고의 유리인쇄업체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가고



▲(주)미광의 공장 전경

있는 (주)미광의 인쇄사업부는 2도를 기준으로 월간 140만개 정도의 화장품 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식가공을 통해 월간 110만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금형기계사업부는 병과 식기의 금형을 제작하고 금형을 수리하는 업무를 28명이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계열사인 삼광유리공업(주)와 삼보유리의 금형을 제작하고 있다.

(주)미광의 유리인쇄공정으로 먼저 삼광유리공업(주)에서 제작한 병이 입하되어 팔레트에 적재한 후 인쇄관에 넣어둔다. 이는 병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병에 습기가 찰 경우 인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그 병제품에 맞는 스크린을 제작한 후 인쇄에 들어가게 되고 자연건조 후 600℃의 온도로 가열된 전기로에서 건조한다. 인쇄 후 부식가공이 필요한 제품은 부식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2도 인쇄에 들어가는데 골드 인쇄의 경우일 때는 하루 건조 후에 2도인쇄에 들어가야 한다. 전기로에서 가열할 경우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5분 정도의 가열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건조과정까지 거친 유리병에 안료를 밀착하고 건조 후 제품이 출하되는 것이다.

현재 (주)미광에서는 한국화장품, 에바스화장품, 한불화장품, 로제화장품 등 국내 주요 화장품병 인쇄와 일본 SHISEIDO화장품과 POLA화장품 제품에 인쇄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업계는 물론, 수출 공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화장품 2개사에 인쇄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하고 고급한 인쇄기술이 요구되는데 불소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술을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세픽사와 기술제휴한 인

쇄기술은 시험가동을 해본 결과 성능 면에서나 인쇄상태, 잔류물이 적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인쇄잉크에 함유되어 있는 오일에 의한 유리병 인쇄시 미세한 부분에서 잉크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쇄 즉시 건조되는 효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인쇄 후 돌출되는 효과를 지녀 세련된 기술에 속하는 HOT COLOR 기술은 일본 및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온도 등 작업조건이 맞지 않아 적용되기 힘든 실정인데 (주)미광에서는 점차적인 개선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5단계 자체 폐수처리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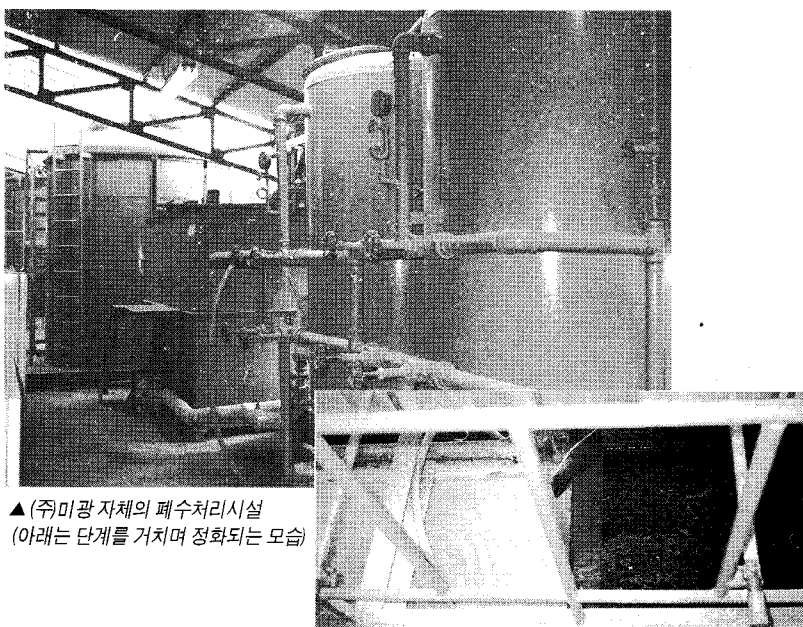
인쇄를 하려면 반드시 인쇄잉크가 필요한데 이 인쇄잉크에는 톨루엔 등이 들어있어 사업장 환경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광의 경우 사업장 환경정도 측정시 그 유해정도

가 기준치에는 미달되지만 지붕이 낮아 저기압일 경우 환기가 힘들어 환경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미광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천장이 낮다는 단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환풍기 설치 및 닥트 설치로 강제 배기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가공부식시 사용되는 불소, 불화암모늄 중 환경에 유해한 불소는 자체내에서 5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며 슬러지를 제거해 방류하고 있다.

이에 인쇄사업부 문학만 차장은 “단순히 사업장 폐기물 및 환경에 관한 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작업환경에서부터 환경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주)미광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소개했다.

인쇄업체들은 유리제조업체에서 병을 공급받아 인쇄를 하기 때문에 유리제병업체와 긴밀한 협조공조체제



▲ (주)미광 자체의 폐수처리시설 (아래는 단계를 거치며 정화되는 모습)



◀(주)미광에서 인쇄한 유리병제품들

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총무부 임진구 대리는 “인쇄업계 전반이 영세하다보니 유리인쇄업체 중에서 가장 그 규모나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저희 (주)미광도 다른 업종의 업체에 비해서는 영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미광은 대기업과의 연계로 안정된 투자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어려운 업계의 현황 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수출 증대를 이루고 있는 (주)미광의 저력을 설명했다.

작업의 전과정에서 수작업을 요하고 있는 유리인쇄업체인 (주)미광은 현장의 사원들이 대부분 주부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가사노동과 사회 활동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주부사원들의 현황으로 인해 100여명의 사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내 활동을 갖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항상 작업장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고 주부사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첨단기술 습득에 최선

또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금형 기계사업분야에 대해 일본기계금형(주)와의 기술합작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금형기계사업부 사원들의 일본연수를 정례화하여 일본현지에서 직접 선진인쇄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국내에는 인쇄사업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주)미광은 월요일마다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진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해 열악하지만 기술력 증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국내 유리인쇄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산적인 면에서 효율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쇄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실정에 의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인쇄작업시 LOT에 따라 색상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는 품질문제에 있어 업체마다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재한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선진기술개발과 수출력 증강을 위한 노력과, 같은 업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쇄업체들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인쇄업체들간의 유기적인 유대관계의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몇년간 포장업체들이 불황을 겪고 있고 각 분야별로 영세한 업종이 많다.

유리 인쇄업종 역시 영세한 분야이지만 각자의 생산라인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보며 (주)미광의, 그리고 국내 각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대로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

업체탐방 문의는  
월간 포장정보 편집실  
02)780-9782

인터뷰 - (주)미광 박헌경 대표이사

# 깨끗한 직장분위기와 복지향상으로 경쟁력 높여

## 현장·실무 경험으로 국내 최고의 자리 지킬터

1995년 9월 전임 대표이사의 퇴임 후 현 (주)미광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헌경 대표이사는 28년여 동안 화학업계에서 쌓아온 실무 경력과 현장경험으로 불과 5개월 남짓의 기간이지만 (주)미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주)미광의 박헌경 대표이사는 “동양 화학의 옥시 이리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임 대표이사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하시면서 같은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주)미광의 신임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인쇄에 대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저희 (주)미광이 유리인쇄업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라며 (주)미광의 대표이사로서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밝혔다.

68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전주 제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박 대표이사는 그간 동양화학(주)와 (주)옥시의 공장장을 거치면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쌓아왔다. 유리인쇄업체들이 워낙 산재해 있고 영세하며 유리병생산업체들의 호황여부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리인쇄업체로서는 자립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박 대표이사는 ‘불량률의 감소와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기업이익을 극대화시켜 전사원의 복지향상의 증진을 추구해 종업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 21세기를 향해 발전하는 기업으로서의 (주)미광’을 경영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또한 영세한 국내 유리인쇄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시세이도와 폴라 화장품병의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그



▲ (주)미광 박헌경 대표이사

자부심과 선진기술력으로 국내 유리인쇄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취임한 지 5개월 남짓이지만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업무 진행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파악과 정리로 더욱 바빴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미광은 인쇄사업부가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수주확보가 어려워 매출이 저조한 것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부식라인의 증설과 신규설비 투자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형사업부의 경우 삼광유리공업(주)와 삼보유리에 대한 충분한 수주가 확보되어 있고 외주 비율을 낮춰 자체에서 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한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큰 기적으로 남습니다”라는 박 대표이사는 기업의 우선 목표인 매출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일본과의 기술협력으로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꾸준히 원가절감 운동을 통하여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이끌어가겠다고 5개월 남짓의 기간보다 더 멀리 보이는 향후 (주)미광 대표이사로서의 경영방침을 밝히는 박 대표이사는 종업원들의 해외기술연수 등을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기술향상을 꾀하여 국내 최고의 유리인쇄업체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

윤지은 기자